



주제 / 서양음악의 연주와 해석과 평

사회 / 서 경 선 (한양대 음대 교수)

토론자 / 이 상 만 (음악평론가)

김 민 (서울대 음대 교수)

성 두 영 (이화여대 음대 교수)

제 2 회 심포지엄에 즈음하여

소장 李 如 辰 교수

서양음악이론(한국에서의)의 체계확립과 이에 따른 교육에 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가진 제 1 회 심포지엄(1983. 9. 22)에 이어, 두번째로 갖는 이번 제 2 회 심포지엄에서는 또다른 광범위하고도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內在하고 있는 「연주와 해석과 평」에 대하여 토론코자 합니다. 연주자의 의무를 해석자(interpreter) 또는 실행자(executant) 아니며는 전통을 근거한 — Beethoven 이 있기에 Haydn 을, Mahler 가 있기에 Beethoven 을, 그리고 Schoenberg 가 있기에 Brahms 를— 재 해석자(reinterpreter)의 어느 위치에 돌 것이냐의 문제점은 「무엇이 들리느냐」가 아니요, 「무엇을 들을 것이냐」의 理論과 이의 응용상 해석, 그리고 이를 평하는 評 역시 예술이라며는(正義), 評 또한 평 받아야만 하리라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선 이의 근거와 방법과 한계 또한 연구되고, 토론되고, 이론화 되어야만 하겠습니까. “理解한다는 것은 同等 하다는 것”이라고 말한 Raphael 의 명언이 우리 창작가, 연주자, 평론가와 청중들 가운데 일치되는 빛나는 순간에 우리 예술은 다시한번 문화의 存在論的 本體(ontological reality)가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.